

## 트와이스, 빌보드 메인 앨범차트 첫 진입에 자체 초동 신기록

걸그룹 트와이스가 새 앨범으로 미국 빌보드 메인 앨범 차트인 '빌보드 200'에 처음 진입하고 자체 초동(첫 주 판매량) 기록도 경신했다.

9일 트위터 빌보드 차트에 따르면 '모어 앤드 모어(MORE & MORE)'는 빌보드 메인 앨범 차트인 '빌보드 200' 200위에 랭크됐다. 트와이스가 빌보드 메인 차트에 이름을 올린 것은 데뷔 후 처음이다.

트와이스 신곡은 글로벌 음악 플랫폼 스포티파이에서도 '글로벌 톱 200' 차트 58위에 올라 그룹 최고 성적을 기록했다. 스포티파이는 뉴욕 타임스스퀘어에 트와이스의 대형 배너 광고를 내걸기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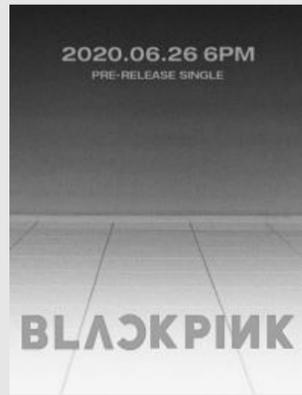


▲ 트와이스 '모어 앤드 모어' 온라인 커버. 사진=JYP엔터테인먼트

2015년 데뷔 후 한국과 일본에서 최정상급 걸그룹으로 활약한 트와이스는 최근 미국 시장 공략에도 나섰다. 소속사 JYP엔터테인먼트는 지난 2월 트와이스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해 미 유니버설 뮤직 산하 레이블인 리퍼블릭 레코드(Republic Records)와 전략적 파트너십을 맺었다.

JYP에 따르면 새 앨범은 선주문 수량 50만 장을 넘어선 데 이어 국내 음반 판매량 집계사이트 한터차트 기준 초동 33만2천416장의 판매고를 기록하며 자체 최고 기록을 세웠다. 이는 전작 '필 스페셜'(Feel Special) 초동 판매량인 15만4천28장의 배가 넘는 기록이다.

## 블랙핑크 컴백 1년 2개월 만



▲ 블랙핑크 컴백 티저 포스터. 사진=YG엔터테인먼트

걸그룹 블랙핑크가 오는 26일 신곡을 내놓으며 1년 2개월 만에 공식적으로 컴백한다.

소속사 YG엔터테인먼트는 10일 공식 블로그(www.yg-life.com)에 이달 26일 블랙핑크 신곡 발매를 알리는 컴백 티저 포스터를 공개했다. 곡명은 밝히지 않고 컴백 날짜만 공개했다. 블랙핑크가 신곡으로 돌아오는 것은 지난해 4월 초 발매한 EP(미니음반) '킬 디스 러브'(KILL THIS LOVE) 이후 처음이다.

이번 신곡은 9월 발매할 블랙핑크 첫 정규앨범의 선공개 곡이다. 블랙핑크는 이번 컴백 후 7~8월께 특별한 형태의 두 번째 신곡을 선보이며 정규앨범 발매를 예약할 계획이다.

블랙핑크는 지난해 '킬 디스 러브'로 미국 빌보드 메인 싱글·앨범 차트에서 K팝 걸그룹 신기록을 쓰는 등 세계적 인기를 누린다. 최근에는 팝스타 레이디 가가와 함께 부른 '사워 캔디'(Sour Candy)가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 '핫 100'에 역대 K팝 걸그룹 최고 순위인 33위로 이름을 올리며 팝 시장에서 존재감을 과시하기도 했다.

블랙핑크는 지난해 '킬 디스 러브'로 미국 빌보드 메인 싱글·앨범 차트에서 K팝 걸그룹 신기록을 쓰는 등 세계적 인기를 누린다. 최근에는 팝스타 레이디 가가와 함께 부른 '사워 캔디'(Sour Candy)가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 '핫 100'에 역대 K팝 걸그룹 최고 순위인 33위로 이름을 올리며 팝 시장에서 존재감을 과시하기도 했다.

## 그래미, '어번' 뮤직 용어 퇴출 동참

인종차별 철폐 운동이 미국 전역을 휘감은 가운데 팝 음악계에서도 '구시대적' 용어를 퇴출하자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그동안 흑인 음악을 포괄적으로 지칭해온 표현인 '어번(urban·도시의)' 뮤직을 다른 용어로 대체하자는 것으로, 유명 음반사 리퍼블릭 레코드에 이어 관계 최고 권위의 그래미 어워드도 동참했다.

R&B와 힙합이 오히려 가장 인기 있는 주류 장르가 된 오늘날 현실에 맞지 않는 표현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 흑인 음악 장르를 표현하는 '어번' 용어 퇴출 움직임이 일고 있다. 사진=shutterstock

'어번' 또는 '어번 컨템포러리'는 그동안 팝 음악계에서 R&B와 힙합, 솔 등 흑인음악 장르를 통칭하는 표현으로 흔히 사용됐다. 1970년대 뉴욕의 한 라디오 DJ가 사용하기 시작해 관계 전반으로 퍼진 것으로 알려졌다.

그래미 '최우수 어번 컨템포러리 앨범상'은 그동안 비운세 및 비운세·제이지 부부의 프로젝트 그룹 더 카터스, 리조, 더 위켄드, 퍼렐 윌리엄스, 리애나, 프랭크 오션 등에게 주어졌다.

먼저 행동에 나선 것은 미국의 대표 레이블 중 하나인 리퍼블릭 레코드다.

리퍼블릭 레코드는 지난 5일 SNS를 통해 "현시점부터 '어번'이라는 단어를 부른, 인력, 음악 장르 등을 수식하는 용어에서 폐기할 것이다. 과거의 구조를 고수하지 않고 우리가 원하는 미래를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며 음악계의 동참을 독려했다.

그래미 어워드를 주최 하는 미국 레코딩 아카데미는 10일 '최우수 어번 컨템포러리 앨범상'(Best Urban Contemporary Album)을 '최우수 프로그레시브 R&B 앨범상'으로 개칭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런 변화는 내년 1월 열리는 제63회 그래미 어워드부터 적용된다.

1	방	한	2	모		3	일	변	4	도	
			5	조	롱	박		6	배	7	달
		8	수	리		이					력
			9	수		9	일	상	10	화	
		11	강	다	12	구				플	
13	잠					명		14	구	이	
15	행	16	실		17	가	락	지		18	매
		19	족	집	계			20	가	창	력



**Jin Hyuk Lee**  
213-210-2898  
735 E. 12th St., #308  
Los Angeles

CA Insurance Agent #: 0G84555

자동차 주택 사업체 생명.



## 숨은그림찾기 정답

